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ibrary Cooper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in Korea

남 영 준(Young-Joon Nam)**

김 규 환(Gyu-Hwan Kim)***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방법 |
| 2. 도서관 협력체계 | 4.1 설문조사 |
| 2.1 도서관 협력유형 | 4.2 분석방법 |
| 2.2 도서관 협력업무 | 5. 데이터 분석 및 논의 |
| 3.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 5.1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운영현황 |
| 3.1 협력체계 구성과 기능 | 5.2 결과분석 및 논의 |
| 3.2 협력체계 운영방식 | 6.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도서관들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 협력업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6개 지역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 8개의 협력 업무에 대한 운영실적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협력 업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협력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많은 개선점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예산과 인력부족, 운영주체의 이원화, 도서관간 협력을 위한 표준 협정과 협의체 미비, 통합검색시스템의 속도 지연, 이용자 정보 공유의 한계, 이용자 및 사서의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에 대한 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fields of library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resolved and to find out a resolution. A survey are used for research method. The contents of survey is about operating performance and main obstacles of cooperation among other librarie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respondents estimated need of cooperation among libraries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cooperation was poor. The system needs to be changed. The problems are insufficiency of budget and personnel, two different types of operating body, insufficiency of standard and committee for cooperation system, delayed speed of integrated retrieval system, limitation of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users, insufficiency of user's and librarian's recognition of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improving method through developed model on cooperation system.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협력망, 협력업무, 협력 모델

Public Library, Library Cooperation System, Cooperation Model

* 본 논문은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를 일부 요약 정리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yj@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emm1996@hanmail.net)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1. 서론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정보서비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적·물적 자원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개별 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전문성 있게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도서관의 주위환경은 개개의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료제공 기능이 소장중심에서 접근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장으로 자료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서지적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에서 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체계의 구축이 현실적 대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특정주제에 따라, 또는 그 목적의 유사성에 따라 인적, 설비, 시설자원, 지식, 전문성과 정보 등의 실체적, 비실체적인 자원들의 공유를 통한 강력한 협의체를 구상하여 왔다(국립중앙도서관(c) 2007, 25). 도서관 협력체계의 기본목표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향상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제공하며, 효과적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16개 시·도에 지역대표도서

관을 두고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경우 단위도서관들이 자발적인 필요성보다는 일괄적인 지도·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구축되어 그 참여율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국의 지역도서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협력망과 협력업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한 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해 지역 단위도서관이 체감하고 있는 협력망과 협력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도서관 협력체제

2.1 도서관 협력유형

전통적인 도서관 협력망은 중앙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협력망은 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한 네트워크식 유형, 매체의 종류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형 등 다양하다(Ballard 1982). 본 연구에서는 협력범위와 협력수준에 따라 도서관 협력 유형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관 활동 통제체제이다. 이는 국가도서관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대표도서관들의 역할이 강조된 모형이다. 이 협력체제는 단위도서관의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체제로써, 국가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의 업무 노드를 매우 크게 할 수 있다. 국가 종합목록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적합하다.

두 번째 유형은 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관 활동 지원체제이다. 이는 대표도서관 통제형과 달리 국가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이 각 지역의 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써, 대표도서관이 컨트롤 센터역할을 하고 단위도서관이 상호협력하는 협력체제이다. 대표도서관은 참여도서관의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역할보다는 공동목록 작업과 통합검색 환경을 마련하고 단위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업무에 대한 지원자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위도서관은 공동목록작업에 참여하고 통합검색을 통해 원활한 상호협력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내의 경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기도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차협력망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 유형은 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관 활동을 통제하고 지원하는 혼합체제이다. 이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상호협력체제의 중개거점(지역거점도서관)으로 국가도서관(중앙관)의 기능을 보조하면서 단위도서관과 실질적인 협력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 협력체제는 중앙관과 지역거점도서관 간에만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도서관 상호간에도 협조가 가능할 수 있어 시스템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단위도서관간 등가적 협력체제이다. 이는 단위도서관간 협력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도서관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 협력체제는 인접

지역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단위도서관간 자원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 대체적으로 규모와 참여 비중이 비슷한 참여도서관들로 구성된 협력체제이다. 국내의 경우 신촌 3개 대학 협의회와 중앙대학교·승실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협력체제등이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중앙집중형 모형과 달리 지역별 혹은 관종별로 구분될 수 있는 복수의 단위도서관들이 등가관계의 형태로써 일련의 협력 체제를 구성한 방식이다.

2.2 도서관 협력업무

도서관 협력(Library Cooperation)과 관련한 용어는 도서관 협동(Library Consortium), 도서관 네트워크(Library Network)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들 용어는 공통적으로 도서관 자원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들이 상호 연결되어 서로의 공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동 체제를 의미한다. 도서관 협력(Library Cooperation)은 두 개의 이상의 도서관이 도서관의 운영이나 자원의 이용 또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봉사를 촉진,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자원(인력, 자료, 시설, 재화, 기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회원도서관간의 상호 보완적, 호혜적 협력활동으로 정의된다(신동민 2007, 415).

현재 도서관법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에서는 모든 관종별 협력을 법제화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구 법에서는 도서관 협력망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새 도서

관법에서는 협력업무라는 광의의 의미를 적용하였다. 도서관 협력 업무는 협력주체와 협력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도서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도서관 협력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두영 1985). 일반적으로 자료수집, 편목, 공동보존 및 보관, 참고봉사, 상호대차의 협력업무가 있다. 또한 출판업무, 공동연구, 직원교육 등을 기능에 포함되기도 하고 마이크로필름제작과 같은 매체제작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신동민 2007, 416). 국내·외 도서관 관련단체 및 협력체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력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관협의회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망은 '회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자료의 상호이용을 위한 활동'을 위한 협력 업무가 중심인 반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협력망은 '도서관 업무와 이용자 서비스활동'을 위한 협력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호협력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는 1) 도서관정보화사업 2) 분담수서 3) 상호대차 4) 공동보존 5)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공동홍보 6) 관외대출증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7) 도서관운영관련 협정(협약)체결 8) 작은도서관 협력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 협력업무는 공공도서관의 대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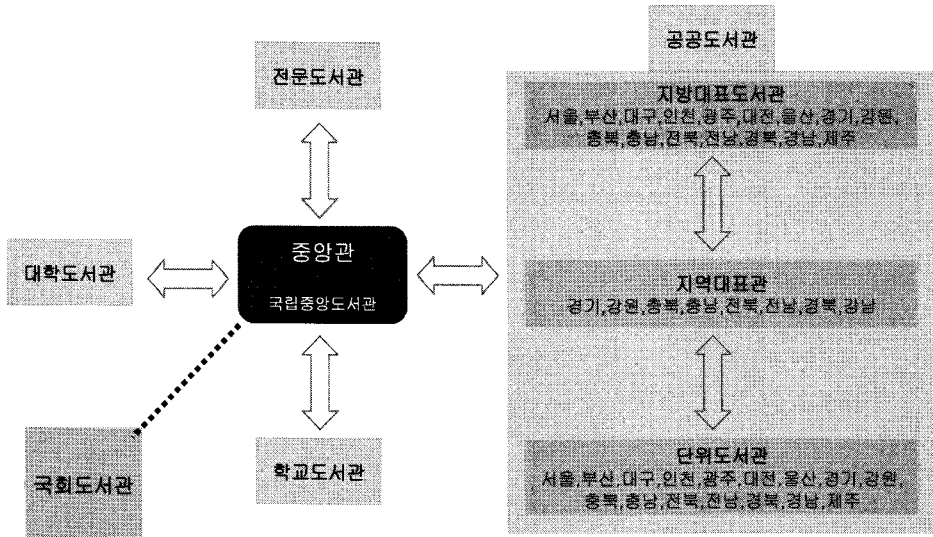
3. 공공도서관 협력체제

3.1 협력체제 구성과 기능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주문받고 있으며 관련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 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업무에 명시되어

<표 1> 도서관 상호 협력내용

미국도서관협회 (1986)	한국도서관협회 (1994)	한국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 (2000)	공공도서관 협력망 (2006)	과학기술정보관리 협의회 (2007)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2007)
1) 상호대차 2) 참고봉사 3) 수서 4) 문헌배달 5) 목록 6) Union List 7) 서지접근 8) 사진복제 9) 대출 10) 인쇄정보처리 11) 장서개발	12) 상담 13) 마이크로 필름제작 14) 자동관리 봉사 15) 문헌조사 16) 데이터베이스보존 17) 정보제공 18) 직원능력 개발 19) 도서관 일상 업무 개선책	1) 분담수서 2) 분담편목 3) 상호대차 4) 원문복사서비스 5) DB공유	1) 도서관정보화 2) 분담수서 3) 상호대차 4) 공동보존 5) 문화프로그램 및 공동홍보 6) 도서관운영관련협정(협약) 체결 7) 외국도서관과 교류	1) 상호대차 2) 원문복사 3) UnionDB 구축 4) 신착자료 상호 제공 5)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1) 연구·교육활동 2) 학술대회 및 워크샵 개최 운영 3) 의학사서 자격인증 관리 4) 협회지 발간 5) 상호대차(문헌복사) 6) 복본교환



〈그림 1〉 도서관 협력망 운영체계

있다. 도서관협력망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공공도서관 협력망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도서관은 564개관이다. 타 관종간의 협력은 각 관종별 협력망 기반 조정 후 연계 운영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협력망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16개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을 두고, 그 아래 지방대표관과 최하위에 단위도서관을 두고 있다. 즉 국내의 공공도서관 협력망은 기본적으로 단위도서관(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망의 기능 수행에 관한 기획·조정·지도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망 운영을 통할한다. 또한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 분석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하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최상위의 단위도서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한 개관씩 총 16개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의 협력망 운영을 통할한다. 둘째, 산하 지방도서관들의 장서구성, 자료조직, 문헌전달 서비스 협력을 조정하며 센터가 된다. 지방대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의 통할을 받아 소관 도서관의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과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의 개발, 시행시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위도서관은 각 시·군·구 단위로 설립되는 협력사업의 실제 수행도서관으로 협력사업을 발굴 및 제안하고, 장서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On-Line)개설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여건을 마련하며 지역 내 협력사업에 참여한다.

3.2 협력체제 운영방식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은 일방적인 지도·지원보다는 도서관간 상호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수행한다. 중앙관은 협력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개발·운영하며, 중앙관은 필요시 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내 2개 이상의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을 총괄하고, 협력사업은 그 추진 상황을 구체협의단계·계획수립단계·시범시행단계·확대시행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협력사업의 개발과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지역단위 또는 지역간 각종 세미나 및 연구, 토론회시 도서관 협력관계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또한 협력망 관련 소요 예산은 각 지역대표도서관 및 단위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한다. 또한 중앙관은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대표도서관에 통보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은 중앙관의 협력망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협력망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중앙관에 제출한다. 중앙관은 협력망 운영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요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역 단위

도서관의 협력업무 운영실적을 조사하였다. 둘째, 지역 단위도서관 협력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협력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4.1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해 공공도서관 협력업무를 1) 도서관정보화사업 2) 분담수서 3) 상호대차 4) 공동보존 5)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공동홍보 6) 관외대출증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7) 도서관운영관련 협정(협약)체결 8) 작은도서관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조사항목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운영실적과 공공도서관 협력업무의 장애요인이며 운영실적은 지역별 실적 도서관수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요인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2007년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두 단계 과정을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1단계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16개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단계로 해당 지역대표도서관들이 지역도서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배포의 역순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관들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정리하고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회수된 조사지를 검토하여 조사항목에 대해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미흡한 도서관 설문지 71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6개 지역 493개 공공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47개관, 부산 22개관, 대구

14개관, 인천 12개관, 광주 13개관, 대전 12개관, 울산 7개관, 경기 97개관, 강원 42개관, 충북 25개관, 충남 20개관, 전북 25개관, 전남 49개관, 경북 50개관, 경남 40개관, 제주 18개관이 선정되었다.

4.2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협력활동에 대한 일반적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도 공공도서관간 상호협력 운영실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의 협력활동의 변화추이를 조사하였다. 비교값 산출은 수식(협력업무별 실시도서관수/전체조사대상도서관수×100)을 이용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협력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2명을 선발하여 연구목적과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킨 후 서술식 설문응답값들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5. 데이터 분석 및 논의

5.1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운영현황

5.1.1 도서관정보화사업

도서관의 협력은 표준에 기반한 공동활용을 함으로써 도서관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활용은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단일화할수록 정보전달

과 유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2006년도 공공도서관 협력은 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써 크게 국가차원에서 KOLAS II와 같은 단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게는 16개 광역지역내에서 공공도서관 통합 검색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업무의 상호협력을 인터넷과 같은 정보채널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간 협력업무용 인프라의 확보라는 점에서의 의의가 크다.

한편 도서관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먼저 2002년 도서관정보화사업 이후 설치된 전산장비들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과 전산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일화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의 이원화 문제와 KOLAS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선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도서관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일괄된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결국은 도서관간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확보와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 확충이 절실하며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1.2 분담수서

우선 2006년도 분담수서 운영현황을 보면 분담수서 참여도서관은 195개관으로 전년도(222개관) 대비 12%가 하락하였고 미참여도서관은 293개관으로 전년도(122개관) 대비 140%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분담수서에 대한 지역도서

〈표 2〉 도서관 정보화사업

구분	소프트웨어 단일화률(KOLAS II)	공동목록 활용률(KOLIS-NET)	소장자료 DB 구축률
백분율(%)	84%	68%	100%

〈표 3〉 지역별 분담수서 추진 실적

구분	참여도서관 수	분담주제구입 예산할당비율(%)	구분	참여도서관 수	분담주제구입 예산할당비율(%)
서울	17개관(36%)	11.9%	충북	14개관(56%)	9.5%
부산	13개관(59%)	7.82%	충남	-	-
대구	9개관(64%)	11.9%	전북	-	-
인천	8개관(67%)	11.6%	전남	30개관(61%)	14.7%
광주	10개관(76%)	8.9%	경북	21개관(42%)	4.4%
대전	7개관(58%)	8.7%	경남	30개관(75%)	4.9%
울산	4개관(57%)	27.2%	제주	8개관(44%)	12.8%
경기	24개관(25%)	23.7%	총계/평균	195개관(40%)	평균 12.16%
강원	-	-			

관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분담수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공공도서관들의 분담수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할 결과, 자관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도서관간의 자료구입 예산과 정기 수서시기 차이, 지역과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분담수서 주제 분야, 도서관간의 지리적 분산, 상호대차 협력망 미비, 운영주체의 이원화, 자관 운영에 대한 낮은 기여도가 그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부족이 가장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제한된 예산으로 분담수서 도서까지 마련한다면 자관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자료 구입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분담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상호대차협력망의 구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1.3 상호대차: 관외실물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국내 상호대차서비스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 관외실물대차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관외실물대차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이 관내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에 관내이동차량 이용비율이 높았다.

한편 통계적으로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된 관외실물대차는 총 177개관(31%)에서 1,005,448건의 실시된 반면 원문복사서비스는 총 45개(8%) 공공도서관에서 4,519건이 실시되었다(표 4와 표 5 참조). 결과적으로 국내 도서관의 상호대차 추진실적은 저조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관외대출 추진 실적

구분	실물대출실시 도서관	2006년도 추진실적	구분	실물대출실시 도서관	2006년도 추진실적
서울	1개관	269건	충북	5개관	802,196건
부산	-	-	충남	6개관	1,643건
대구	-	-	전북	25개관	15,964건
인천	1개관	250건	전남	45개관	3건
광주	4개관	67,687건	경북	-	-
대전	3개관	50건	경남	8개관	15건
울산	-	-	제주	1개관	3건
경기	78개관	117,368건	총계	177개관	1,005,448건
강원	-	-			

〈표 5〉 지역별 원문복사서비스 추진 실적

구분	원문복사서비스 실시도서관	2006년도 추진실적	구분	원문복사서비스 실시도서관	2006년도 추진실적
서울	1개관	2,137건	충북	-	-
부산	-	-	충남	1개관	5건
대구	-	-	전북	25개관	71건
인천	1개관	1,600건	전남	-	-
광주	-	-	경북	-	-
대전	-	-	경남	12개관	419건
울산	-	-	제주	-	-
경기	5개관	37건	총계	45개관	4,269건
강원	-	-			

이러한 결과는 다른 협력업무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주원인으로는 상호대출시스템과 지역협력망의 미확보, 운영주체의 이원화, 도서관의 지리적 분산, 비용부담 문제, 상호대출 관련 기준 및 기준 미비(자료훼손과 미반납의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택배업체 선정 및 관리, 이용자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도서관 협력 업무로서 상호대출은 필요하지만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는 이상과 같은 많은 장애요인들로 인해 제대로 상

호 협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국가표준상호대출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국가표준상호대출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상호대출 기준과 적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4 공동보존

공동보존은 많은 도서관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이관자료의 기준과 같

은 세부 실무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동보존 공간의 확보에 따른 도서관간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늘어나는 장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보존서고를 확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자체보존서고를 갖춘 도서관은 192개관(34%)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지역도서관들은 예산, 공간, 시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보존서고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자체보존서고를 갖춘 도서관의 경우도 보존서고의 과포화화 관리시설 미흡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서고 환경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동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내 또는 그 외 별도의 공간에 공동보존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예산확보,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주도의 지역대표도서관 보존서고건립운동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1.5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공동홍보

문화프로그램협력은 공공도서관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간의 문화프로그램 협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과 함께 각 공공도서관의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실질적 문화 프로그램 협력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정보를 공유하는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이다.

공동홍보는 문화프로그램협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을 광역시도 차원에서 수행할 때, 제7회 제주도 공공도서관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의 홍보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참여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나 e-소식지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공동홍보의 방법도 용이하고, 홍보내용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5.1.6 관외대출증 공유 및 복사카드 공유

관외대출증 공유는 협력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통합의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사한 공공도서관은 관외대출증 공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외실물대차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상호대차의 확대와 관외대출증 확대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과 경지지역은 관외대출증의 확대와 함께 관내 도서관간 상호대차의 확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공공도서관은 관내의 공공도서관간 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었다.

한편 관외대출증 공유율이 54%로 총 307개 관만이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대출정보시스템 실시간 업로딩 및 검색속도 문제, 운영주체의 이원화, 관외대출 규정 표준화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통합대출정보시스템의 경우 타도서관 대출정보 및 연체 정보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속도가 느려서 대출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표 6〉 지역별 관외대출증 공유 현황

구분	공유도서관수				구분	공유도서관수			
	공공	학교	대학	작은 도서관		공공	학교	대학	작은 도서관
서울	27	-	-	34	충북	-	-	-	-
부산	-	-	-	-	충남	19	-	2	-
대구	12	-	-	-	전북	-	-	-	-
인천	9	-	-	-	전남	10	-	-	-
광주	10	-	-	-	경북	15	8	-	-
대전	12	-	2	-	경남	19	-	-	-
울산	4	-	-	-	제주	-	-	-	-
경기	99	10	4	6	총계/평균	241	18	8	40
강원	5	-	-	-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회원자격, 대출정지등의 관외대출규정이 표준화되지 못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은 통합대출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대출업무 처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관외대출 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도서관들의 복사카드 공유 실적을 보면 307개관으로 전년도(146개관) 대비 48%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코인제를 도입하여 카드공유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밖의 지역 도서관은 복사카드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공공도서관 564개관 중 28.4%(160개관)만이 복사카드공유를 실시하고 있어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공유 도서관간의 협약추진, 같은 계열의 복사시스템을 통한 호환성 확보, 공동복사카드 제작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1.7 도서관운영관련 협약

도서관 운영관련 협약은 공공도서관간의 협약보다 타기관과의 협약을 의도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운영관련 협약을 통해 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공공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협약은 상호호혜적인 것을 의도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공공도서관이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도서관 역할의 일부를 맡고 있었다. 그 밖의 많은 도서관들은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관내 대학도서관과 같은 타관종 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1.8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공공도서관의 대민서비스 확대방안으로써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지역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내용은 〈표 7〉, 〈표 8〉과 같다.

〈표 7〉과 같이 16개 지역 중 총 12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다.

〈표 7〉 지역별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실적

지역	공공도서관명(협력 작은도서관명)
서울	동대문(꿈틀도서관), 관안도서관(글빛정보, 봉천2동작은도서관), 금호(꿈나래문고), 성북(30개 문고)
부산	중앙(엄궁대림평생학습문고), 부전(신개금LG평생학습마을), 반송(민락푸르지오학습마을), 구포(화명대협평생학습마을), 해운대(좌동주공2단지), 구덕(유진대림평생학습마을), 서동(부곡SK평생학습마을), 연산(현대평생학습마을), 사하(가락타운평생학습마을), 명장(안락SK평생학습마을)
대구	북부(도토리어린이도서관 외 4개관), 도원(달서구청행정정보 문고센터의 6개관)
인천	북구(17사단 공병대대의 7개관), 부평(진달래어린이도서관의 2개관), 서구(물푸레도서관의 7개관), 계양(1687부대 문고), 연수(신송중학교외 2개관)
광주	무등(이름의 34개관), 사직(광주임마누엘교회의 2개관), 일곡(25개 동사무소), 신가(본량동 작은도서관 외 2개관)
대전	한밭(대전 관내 97개 작은도서관, 갈마(꿈쟁이작은도서관)
울산	남부(행복한 마을문고), 울주(온양읍사무소의 8개관)
경기	성남(아기파이문고의 17개관), 부천(신나는가족도서관의 12개관), 안산(참사랑 문고의 3개관), 용인(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6개관), 광명(광명옹달샘도서관의 12개관), 시흥(군자동주민자치센터의 23개관), 화성(한우리독서문화원의 3개관), 이천(이천사랑문고의 3개관), 김포(누리봄문고), 안성(부영도서관의 6개관), 하남(에코타운문고의 3개관), 의왕(문고 19개관), 오산(8개관) 그 외
강원	원주평생교육정보관(단계독서방의 1개관), 강릉평생교육정보관(하늘공부방의 3개관), 문막도서관(이름드리도서관의 3개관), 춘천시립도서관(꾸러기문고의 14개관), 강릉시립도서관(솔솔꿈나무작은도서관의 1개관) -> 5개관
전남	나주공공도서관(봉황작은도서관), 옥곡공공도서관(석청도서관의 1개관)
경북	구미시립(고아부대의 3개관), 봉화(옹달샘도서관), 의동도서관(작은도서관)
경남	거제(푸른솔작은도서관), 양산(양산(황전아파트새마을문고의 6개관), 의령(덕암교회문고의 1개관), 창녕(창녕군내 마을문고)

〈표 8〉 작은도서관 협력업무

구분	물리적 협력	인적 협력
협력내용	- 도서의 장기대출(순회문고운영 형태 포함) - 도서 및 서가 지원 - 작은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서지데이터 지원 - 작은도서관 주관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 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육 - 교육문화프로그램 교육 지원

특히 작은도서관 협력업무는 '자료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은 '국민이 실감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자 국가적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는 지역공공도서관이 관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호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차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서비스전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은 향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문고포함)의 운용시스템의 이원화로 인

해 발생하는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산, 인력, 장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2 결과분석 및 논의

본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발전적 모델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1 기본 방향

국내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확대는 지식의 양극화를 개선함으로써, 또한 각 도서관의 특징적인 장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도서관의 제한적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국가 지식 및 문화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의 형태로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 구조를 계층형에서 참여 협력형으로 확대한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라 상호협력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실시한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5.2.2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성 및 운영방식

1) 협력형 위원회와 참여형 총회 구성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상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서관 관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형 위원회(이사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협력형 위원회는 각 지역대표도서관(16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사기관으로 하고, 각 지역 공공도서관을 회원 기관으로 구성한다. 특히 기존의 협력망 관리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조정기관으로써의 장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을 이사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공공도서관 협력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각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 관내의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주관하는 지역 협력망을 구성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협력망 주관을 위해 이사회 의장기관으로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모든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중요 협력내용과 사항 등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형 총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계층적 구조에서 협력형 구조로 도서관법의 취지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을 연결점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이사기관으로 참여하는 체계와 전국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체계의 이중 구조로 국가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 협력망 이사회의 역할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회원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정역할
- 우수 협력 공공도서관의 선발 기분 개발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 관내 지역 공공도서관의 의무 및 권익의

조정

- 기타 국가 공공도서관 협력망 발전을 위한 제반 분야 연구 및 지원 등

2) 운영방식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운영은 일차와 이차, 삼차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일차 운영은 현재 모든 지역에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역대표도서관과 지역 단위 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차 운영은 각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이 선정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규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한다.

5.2.3 공공도서관 지원 모델 개발

발전적인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협력은 대등한 관계로서의 협력과 함께 작은도서관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원을 갖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문화복지기관 설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한 협력 모형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상호대처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작은도서관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관중간 협력 모형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참고서비스 확대를 통해 타관

종의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5.2.4 국가지원확대

공공도서관의 예산원은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써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단순한 자료의 구입비에 대한 지원과 배분의 의미보다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조성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개발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가) 도서관정보화시스템 개선
- 나) 지식정보표준화도구 개발
- 다) 상호협력 수반 비용 지원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발전적 모델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들의 협력 업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실질적인 추진실적은 협력업무 전반에 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으로 예산과 인력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그 외 운영주체의 이원화, 도서관간 협력활동을 위한 표준 협정과 협의체 미비, 통합검색시스템의 속도 지연, 이용자 정보 통합화의 문제, 이용자 및 사서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 협력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망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도서관 협력망의 기본방향은 1)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방식을 참여 협력형으로 확대하고,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상호협력에 용이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3)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기본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1) 협력형 위원회와 참여형 총회 구성 2) 일차와 이차, 삼차로 구분된 협력망의 점진적 운영 3) 공공도서관

지원모델 개발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원확대 방안으로써 1) 도서관정보화시스템 개선지원 2) 지식정보표준화도구 개발 3) 상호협력 수반 비용지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공공도서관 협력업무가 가진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여기서 제시한 협력망 발전모델과 추진과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가 도서관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철완. 2007. 통합도서관의 발전과 그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37-352.
- 국립중앙도서관(a). 2006. 『도서관협력망 운영 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b). 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c). 2007 『국가표준 상호대차 기준(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세훈 등. 2002.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정책과제 2002-9). 서울: 문화정책개발원.
- 신동민. 2007. 대전지역의 대학도서관 상호이용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413-438.
- 이두영. 1985. 『도서관망의 구조와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영. 1987. 『圖書館네트워크 構造論』. 서울: 구미무역.
- 이용남외(a). 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용남외(b). 2002. 공공도서관협력망에 대한 평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127-152.
- 한국도서관협회.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성택. 2004. 국가 통합 도서관 협력체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9-49.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6. *American Library Directory*. Chicago: ALA.
- Ballard, Tom. 1982. "Public Library Networking: Neat, Plausible, Wrong." *Library Journal*, 107(7): 79-83.
- Boucher, Virginia. 1997. *Interlibrary Loan*

Practices Handbook. 2nd ed. Chicago:
ALA.

Colar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 [cited
2008.02.01].
<<http://www.coalliance.org>>.

Library of California. [cited 2008.02.02].
<<http://www.library.ca.gov>>.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cited 2008.02.
02]. <<http://www.nls.uk>>.